

조세 · 재정 BRIEF

kipf 한국조세연구원

2011. 1. 7(금)

지하경제의 규모 추정

요 약

- 지하경제는 국가 경제정책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 -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고 변화 동향과 변화 원인을 파악함

- 추정결과는 추정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, 소득세 탈세 규모만을 지하경제라고 보면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5% 미만이라고 할 수 있으며,
 - DYMIMIC 모형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2008년 지하경제가 GDP의 17.1%인 것으로 추정됨

- 추정방법과 자료에 따른 결과의 상이성에 비취볼 때 절대규모보다는 변화 동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,
 -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축소되는 추세이며, 2000년대 들어 축소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 것으로 추정됨

- 1990년대의 금융실명제 · 부동산실명제 등 경제 투명화를 위한 노력과 2000년대의 신용카드 활성화, 현금영수증제도 등 과표 양성화 노력이 지하경제 축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

2 지하경제의 규모 추정

I 서론

- Schneider(2007)는 전 세계 145개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였는데, 우리나라는 2004~2005년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7.6%로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남
 - 이후 Schneider 교수는 매년 세계 각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·발표하였는데,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

- 지하경제가 크면 정부가 정확한 경제정책을 수립·집행할 수 없으며, 정책의 공평성과 효율성이 저해됨
 - 지하경제의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고, 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바,
 - 본 연구원에는 최근의 자료와 우리 실정에 맞는 추정방법을 활용하여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음¹⁾

II 지하경제의 개념

- 지하경제는 국민의 경제활동 중에 정부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을 말함
 - 불법적인 경제활동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제활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,
 - 불법적인 경제활동은 경제주체들이 행위를 철저히 감추며, 거래 자체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활동을 포착할 수 없음
 - 가사활동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제활동은 거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포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

1) 안종석 외, 『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』,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, 2010. 12.

- 지하경제의 추정은 불법적인 활동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부분 중 공식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추정하는 데 초점을 맞춤
 - 주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 거래를 은폐하는 경우와 노동시장에서의 규제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거래를 감추는 경우가 대상이 됨

III 지하경제 규모 추정방법

-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, 실제 지하경제 규모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여 어느 방법이 가장 우수한지도 입증할 수 없음
 - 본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하고 추정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하경제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파악하고자 함
- 비교적 많이 활용되는 추정방법은 직접추계방법, 간접추계방법, 그리고 모형추계방법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
- 직접추계방법은 설문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통해 지하경제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인데, 조사방법 · 시기 · 대상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
- 간접추계방법은 특정 경제지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추론하는 방법임
 - 납세신고자료를 분석하여 탈세규모를 추정하는 방법, 통화지표를 통해 현금거래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 등이 활용됨
 - 본 연구에서는 탈세에 초점을 맞춰 두 가지 다른 방법을 활용하여 추정함
 - 지출-소득 비교방식: 가계조사자료(통계청)와 과세자료(국세청)를 비교하여 사업소득자의 과표탈루율과 부가가치세 탈루율 추정
 - 정부의 공식 통계 비교방식: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자료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비교하여 세

4 지하경제의 규모 추정

금 탈루율 추정

- 이 방법들은 노동시장 규제 등 세금 외의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지하경제를 파악하지 못하므로 ‘지하경제’보다는 ‘탈세’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함

- 모형추계방법은 지하경제를 유발하는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들과 지하경제를 반영하는 여러 지표들을 종합하여 구조방정식을 설정하고 그 방정식을 통해 숨은 변수인 지하경제를 추정하는 방법임
 - Schneider 교수가 세계 각국의 지하경제를 추정하는 데 사용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‘DYMIMIC(Dynamic Multiple Indicators and Multiple Casuses Model)’이 대표적인 방법임
 - DYMIMIC는 지하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간접추계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며, 다른 방식에 비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의 지하경제를 추정한다는 장점이 있음
 - Schneider의 추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4~2005년 GDP의 27.6%이며,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
 - 본 연구에서는 모형추계방식으로 DYMIMIC 방식을 활용하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구조방정식을 새로 설정하고
 - 우리나라만의 자료를 사용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함

IV

지하경제 규모 추정결과

- 소득-지출 비교방식을 활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세 탈세 규모를 추정한 결과 사업소득세 탈루 규모는 21조 7,854억원으로 추정됨
 - 소득포착률을 추정한 결과 소득세 신고율이 77.05%이고, 탈루소득 규모가 29조원(GDP의 3.1%)으로 나타남
 - 소득 탈루로 인해 발생한 과세손실액은 4조 3,205억원으로 추정됨(GDP 대비 0.46%)
 - 종합소득세 탈루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의 탈루 규모를 유추하면 과세표준에서 탈루된 금액은 8조 4,225억원으로 추정됨
 - 탈루세액은 8,423억원으로 GDP의 0.09% 수준으로 추정됨

- 산업연관표상에 나타난 자료와 국세청의 자료를 비교하여 세금의 탈루율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,
 - 개인사업자의 매출과표양성화율은 2000년 45.6%에서 2005년 58.7%로 상승하였으며 2008년에는 70.1%로 급격히 상승함
 - 매출과표양성화율: 사업자가 매출액(수입총액)을 정확하게 신고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지표
 - 매출과표양성화율의 상승은 근로장려세제 등의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원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
 -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의 탈루규모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2005년 부가가치세 탈루액은 2조 3천억원, 탈루비율은 5.6%임
 - 2000년 탈루비율 15.5%에 비해 탈루비율이 크게 낮아짐

- DYMIMIC 모형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기 전에 전단계로서 화폐수량방정식을 이용하여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함
 - 화폐수량방정식 추정방식은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현금거래를 지하경제로 보고 그 규모를 추정하는 것임
 - 이 방법은 현재 활발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나 지하경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, DYMIMIC 방식의 추정시 지하경제 규모에 대한 벤치마크로 활용됨
 - DYMIMIC 방법은 최종적으로 지하경제 규모의 인덱스만을 산출하며, 이를 GDP의 xx%와 같이 절대적인 규모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화폐수량방정식을 이용한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가 활용됨
 - 화폐수량방정식을 이용하여 추정한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90년대에는 약 24%, 2000년대에는 약 18%로 추정됨
 - 시간 간격을 두고 살펴보면,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

- DYMIMIC 모형을 통해 추정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8년 17.1%임
 - 1990년에는 GDP의 28.7%였고, 2000년에는 23.7%, 2007년에는 18.2%, 2008년 17.1%로 추정됨
 - DYMIMIC 모형은 지하경제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를 추정할 뿐 GDP의 일정 비율로 표현되는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지 않음
 - 본 연구에서는 화폐수량방정식을 통해 추정한 2006년도 지하경제 규모(약 17.7%)를 사용하여

6 지하경제의 규모 추정

DYMIMIC으로 추정된 지하경제 인덱스를 지하경제 규모(즉, 대 GDP 비율)로 전환하였음

V

요약 및 시사점

- 본 연구의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, 이 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특징적 현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
 - 첫째, 추정결과는 추정방법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는 지하경제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움
 - 소득세 탈루 규모만을 지하경제라고 보면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5% 미만인 것으로 판단됨
 - 화폐수량방정식을 통해 추정한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17~18% 수준임
 - DYMIMIC 모형을 통한 추정결과도 화폐수량방정식을 이용한 경우와 유사함
 - 따라서 지하경제의 절대규모에 대한 추정치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변화동향과 변화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
 - 둘째,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지하경제 규모는 이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되었으며, 2000년대 들어 축소 속도가 빨라짐
 - DYMIMIC 추정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 이전에 GDP의 30%에 육박하였던 지하경제 규모가 1990년대에는 25% 내외로 축소되었고, 2008년에는 17.1%로 추정됨
 - 셋째, 우리나라의 자료와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8% 수준이며 최근 수년간 증가세를 보인다는 Schneider의 추정결과와 상이함
 - Schneider는 세계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변수들로 모형을 설정한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대변하는 변수들을 활용한 것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됨

지하경제 추정결과 요약

추정방법	사용자료 (지하경제지표)	추정결과(2008년)	변화추이 등
지출 · 소비분석	가계조사자료, 국세통계자료(탈세)	사업소득세 탈루율: 17~23% 탈루 규모: GDP의 2.3~3.1% (22조~29조원)	
산업연관표분석	산업연관표, 국세통계자료(탈세)	소득세 수입 탈루율: 29.9% 부가가치세 탈루율: 5.6% ¹⁾	2000년 54.4% 2000년 15.5%
화폐수량방정식	한국은행 자료 (현금거래)	지하경제 규모: GDP의 18.6~18.9%	1990년 26% 내외 2000년 20% 내외
DYMIMIC 모형	다양한 자료 (탈세, 현금거래 등)	지하경제 규모: GDP의 17.1%	1990년 28.7% 2000년 23.7%

주: 1) 2005년

-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 축소는 경제의 발전 외에도 정부가 추진한 투명성 제고 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음
 - 화폐수량방정식과 DYMIMIC 추정 과정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지하경제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음
 - 화폐수량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대 GDP 비중이 지하경제 축소에 유의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,
 - DYMIMIC 모형 추정에서는 금융시장의 확대가 공식경제의 비중을 확대하고 지하경제의 비중을 축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
 - 정리해 보면 1990년대의 지하경제 규모 축소는 금융실명제, 부동산실명제 등 경제 투명화를 위한 노력의 성과이며,
 - 2000년대 이후의 지하경제 규모 축소는 신용카드 활성화,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 등 과세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성과인 것으로 판단됨

작성자 : 안중석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(02-2186-2200)